

4장. 정치가 사라졌다: 뷰캐넌에서 이아노폴로스까지, 보수주의자들의 문화전쟁

반세기동안, 정치인이 실제로 어떤 정책을 내는가와 전혀 상관없이 그의 문화정치적 스탠스가 그의 정치성향을 설명하게 되었다. 현대 정체성 정치에서 서로를 적대하는 보수/진보 진영 모두 문화정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¹을 짚는다. 저자는 90년대의 보수주의자 뷰캐넌과 2010년대 후반의 '대안우파' 이아노폴로스를 대비해 대안우파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다.

1960년대 보수주의 문화전쟁은 문화적 좌파 세력이 일군 엄청난 성과(낙태죄 폐지, 적극적 차별 철폐, 예술, 검열, 발전, 전통적 가족주의의 붕괴 등)에 대응하는 운동이었다. 뷰캐넌은 문화전쟁을 이렇게 일컫었다. "이 나라에서는 문화전쟁이라는 종교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전쟁은 냉전만큼이나 미국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경 대안우파인 이아노폴로스의 행동양식은 전통적 자유주의와 거의 유사하다. 흔히 서구권에서 '보수주의'를 말할 때 떠올리는 '독실한 교회 신자', '강직하고 단정한', '가족을 중시하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저자는 이아노폴로스가 전통적 자유주의의 면모를 보이는 이유로 1960년대 좌파의 반문화 및 위반의 형식이 사회적으로 수용된 결과를 꼽는다. 개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아이러니, 허무주의까지. 우파가 비판했던 좌파의 특징이 대안우파의 특징²이 된 것이다.

온라인 문화전쟁은 좌파 진영 뿐 아니라 우파 진영 안에서도 여러 분열을 만들어냈다. 대안우파는 반트럼프 보수주의자들에게 '오쟁이 진 보수'³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런 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 문화혁명 이후 문화적 좌파를 잠식하는 데 성공한 세력이 신보수주의자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트로츠키주의자로 시작하였으나 우파로 전향한 세력으로, 기득권 보수주의자가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좌파의 도그마를 비판했다. 오늘날의 대안우파 역시 보수주의자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체성 정치를 공격한다.

영어권 국가들에서 문화전쟁 담론의 좌우파 운동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재구성되고 재사유되고 재정향되어온 정치 나침반에 근거해 구성된다. 1972년 대선 국면에서 미국노동연맹 산별노조협의회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정체성 정치를 표명하며 경제정 불평등을 중심에 두지 않는 '변절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 신좌파 사상가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부유한 사회에서는 근대 혁명의 두 주체였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더이상 역사적 변혁의 주체가 아닌 것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관점의 사람들이 보기에 노동계급은 '혁명적'이기보다는 반동적이며 문화적

¹ 동성혼에 호의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 만으로도 진보적인 이미지를 획득한 민주당 정치인이 이스라엘에 전폭적인 지원하는 일이 용인되거나, 노조를 탄압하는 액션만으로도 가족을 붕괴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일이 용인되는 등... 한국 보수/진보의 흐름도 유사하게 그려짐.

² 이 당시 '대항문화'의 특징(위반적, 거짓의 폭로, 권력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 전본적)이 이아노폴로스가 명성을 얻게 된 특징과 유사하다.

³ 유색인종 외국인 침입자들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는 의미. 한국에서는 유사한 분노가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음.

보수에 가까워졌다. 반면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정체성 운동은 어느 때보다 급진화되었다.

이렇듯 마일로 이아노폴로스⁴와 그의 포챠 트롤러들은 아이러니, 농담, 다중의 대중문화적 레퍼런스 등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고자 하는 문화적 좌파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그렇게 부정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던의 완벽한 재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아노폴로스의 주적은 단연 페미니즘이었다.⁴ 그는 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멸칭을 쓰는 등 동성애혐오적 면모도 보인다. 이 점에서 그는 뷰캐넌과 유사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뷰캐넌은 여성해방과 동성애자 해방이 동일하게 병적인 것으로 보는 전통적 보수주의의 면모를 보인다. 반면 이아노폴로스는 동성애자 남성을 추켜세우고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경기를 일으킬만한 성해방적 기행⁵을 전시한다. 이아노폴로스를 비롯, 포챠의 온갖 포르노적 섹슈얼리티 역시 성보수주의보다는 성 혁명의 산물에 가깝다. 포챠의 문화는 섹슈얼리티에 관련한 모든 도덕적 금기를 '위반'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는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뷰캐넌이 검열, 특히 포르노에 대한 검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

대안우파는 무언가를 지키고 해내겠다고 약속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부숴버리겠다고 선언하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대안우파는 미국의 보수주의의 핵심인 '미국이라는 국가의 탄생은 이념에 근거하여 구성된다'는 미국 예외주의를 전면 부정한다. 결과적으로 뷰캐넌과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이아노폴로스를 비롯, 그가 가장 혐오했던 것들의 표상이나 다름없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밝혔다. 이러한 대안우파의 부상은 보수주의의 귀환이라기보다는 비순응주의, 자기표현, 위반을 위한 위반과 반권위주의가 절대적 헤게모니를 차지했다는 증거다. 무원칙적 반문화 사상은 신우파의 양식⁶이 되었다.

5장. 소환하고 낙인찍고 숙청하기 : 텀블러에서 캠퍼스 전쟁까지, 분열하는 좌파

저자는 신우익의 성장이 대학 캠퍼스와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부각되기 이전부터 텀블러 같은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정체성 정치의 적대적 온라인 문화에 맞서며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을 짚는다. 새로운 정체성 정치는 우파 진영의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다.

트럼프 당선의 여파로 광의의 '좌파'는 전례 없는 분열을 겪었다. 특히 리버럴 좌파와 경제적 좌파 사이의 적대와 괴리가 심각해졌다.

저자는 리버럴 좌파의 문법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텀블러를 이렇게 표현했다. "급격히 증식하는 정체성의 세목과 사소한 차이들, 구조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편견으로 입은 정서적 상처에 기반한 정치가 극단으로 치달은 곳". 백인/이성애자/남성/시스젠더라면 '듣고 믿으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이들

2010년 초, 텀블러 이용자들은 버틀러의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며 완전히 하위문화적인 슬로건과 언어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핵심은 정체성의 '유동성'이었다. 아돌프 리드 주니어 교수는 리버럴이 실제 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고통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통,

⁴ 한국의 '일부' 남성들이 그의 반-페미니즘 영상을 번역해 레퍼런스 삼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페미니즘은 암이다(Feminism is Cancer).'

⁵ 향문 성교 농담, 본인의 성경험에 대한 공공연한 연설, 마약, 광란의 파티와 음주가무 관련 농담들

⁶ 찾아보니 '대안우파' 계열과 '신우파' 계열이 조금 다르네요. 백인남성 중심 정체성 정치하는 우파 계열과 선을 그은 온건한 우파를 '알트라이트'라고 부르는 듯! 이아노폴로스 역시 이 계열입니다.

나약함, 취약함을 숭상하는 것은 현대 리버럴 정체성 정치의 핵심이 되었고, 이것이 텀블러 같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젠더 유동성에 초점을 두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구성원들이 ‘장애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취약하고 고통스러운 존재임을 자처한다.

정체성 정치는 ‘구획짓고 인정받기’ 이외에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바로 자학이다. 자학은 하위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중 백인, 남성, 이성애자 시스젠더, 비장애인에게서 나타난다. ‘특권을 확인하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때로는 자신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죽고 싶어진다’고 자학하곤 한다. 이들은 취약성과 자학을 과시하는 한편, 대안우파와 전혀 다르지 않게 익명성 뒤에 숨어 집단적 악랄함과 공격성으로 행동하기도 했다. 리버럴 좌파들은 집단공격과 집단적 망신주기를 통해 정치적 환경에서 타인의 삶과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악랄한 시도, 취약성, 피해의식이 뒤섞인 문화를 조성했다.⁷

맑스주의 비평가 마크 피셔는 이런 집단공격을 “파문하고 단죄하려는 사제의 욕망, 사소한 실수부터 찾아내려는 관료의 욕망, 배타적 그룹의 일원이하고자 하는 힙스터의 욕망으로 추동된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여기에 화폐를 ‘덕목’으로 치환한 지대추구 개념을 추가했다. 더이상 덕목의 총량이 변하지 않을 때, 리버럴 좌파 집단 내부에서 발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고 강렬한 도덕률을 적용하여 타인의 행실을 비판하며 본인 몫의 덕목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온라인 공간에서 펼쳐졌다.

이러한 일련의 공격이 일어난 뒤, 우파 진영의 일부는 공격의 대상이 됨으로서 발언권과 존재감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표적이 된 좌파와 우파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우파는 문제적 발언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반면 좌파는 당혹스러워하거나 방어적이거나 변명을 하고 좌파로서 본인의 가치를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이다.⁸ 버클리 신좌파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토드 기틀린은 캠퍼스 전쟁을 비판하며 “좌파가 영문학과로 행진하는 동안 우파는 백악관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등에 대한 요구가 보편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정체성에 대한 학계의 상대주의적 개념들은 “평등의 종언”을 표상한다고 주장했다. 매서운 불관용은 강단좌파에서 특히 도드라지며, 소칼의 (그럴싸한) 가짜 논문 사건 이후 그의 지지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좌파 보수주의’라는 혐의를 덧씌우며 학문적 담론장에서 축출하고자 했다.

⁷ 한국에서는 트위터의 공론화 문화, 사이버 불링, 터프들이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 최근 멧갈라에서 화제가 된 취소문화도 유사한 전략이 활용되었음.

⁸ 교차페미를 자처하다가 래디컬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로이지 않을까..